



2018년

2018년 한복을 입은 서울 재동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종이로 만든 왕관을 쓰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DB

초등학교 입학식

글 조보희 기자

3월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8살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응석받이 꼬마를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보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초등학교마다 입학생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산간 도서 지역은 물론 도심의 학교도 입학생이 귀해 신입생이 한 명이나 홀로 입학식도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최고라는 의미로 왕관을 쓰기도 하고 선배들이 업어 주기도 합니다. 한복을 곁게 차려입은 신입생을 보면 미소가 절로 피어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청년층이 많을수록 사회는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산아 제한 캠페인을 벌이던 때가 그리기도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새싹들의 입학식 풍경을 사진으로 모아 봤습니다.



1960년

서울 재동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 연합뉴스 DB



1978년

가슴에 손수건을 매단 서울 매동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입학식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1999년

모든 것이 신기한 듯한 표정의 서울 흥은초등학교 신입생들 사진 / 연합뉴스 DB

달라진 교실풍경



1973년 문교부 지정 자활급식학교로 선정돼 도시락 없는 학교가 된 충북 음성 원당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만들어 준 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DB



197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 교실 책상과 걸상 사진 / 연합뉴스 DB



2016년 서울 안산초등학교 2학년생들이 알림정을 읽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DB